

스포츠 信仰

한 여름 숨막힐 정도로 찌는 더위 속에서 시원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역시 스포츠 경기를 보는 일이다.

T V프로 중에서도 스포츠 중계는 자질구레한 드라마 보다 한결 우리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 준다. 서로 부딪치고 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고생을 생각하면서도 역시 보는 사람에게 현실을 초월하는 무아의 경지로 끌여가는 힘을 가진 것이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한다.

슬로우 비디오에 반복되는 선수들의 움직임은 마치 무대 위에서 음악에 맞추어 추는 무용과 서로 통하는 동작이다. 그러고보니 무용과 스포츠는 역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스포츠가 더위를 이기게 하고 관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역시 승패를 걸고 싸우는 선수들의 투지, 전략 등도 있겠지만 승패를 가름할 때까지 경기를 해가는 동안에 지키는 규칙이나 정당하게 싸우는 페어플레이 정신 때문일 것이다. 공정한 판정에서 이기는 경기는 뒷맛이 좋다. 잔뼈나 속임수로써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런 경기는 관객들의 편찬을 받게 마련이다.

어린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권장하는 것은 펍 좋은 일이다. 그런데 경기에서 이기는 전략이나 투지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오늘의 우리 생활 속에서 정치나 종교,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생존경쟁 속에서 정말로 페어플레이 정신이 남아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결 밝아질 것만 같다. 세치기, 눈가림, 뒤통수 치기 등 온

갓 속임수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짓밟고 있다. 숨막힌다는 것은 더
위나 공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인지 스포츠 구경은 언제나 시원스럽다. 경기에 넋을 잃은
관람객들의 무아지경은 어쩌면 종교적 의미마저 지닌 것 같다. 페어
플레이는 따지고 보면 종교적 신앙의 차원에서 다시 음미할 수 있
지 않을까?